



셀 위 댄스?

글 한유진, 그림 임덕란/ 책고래



어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춰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꿈을 간직한 채 춤을 추는 멋쟁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춤을 추었어요. 알록달록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공연도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여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한껏 멋을 내고 파티장으로 향했지요. 드디어 신나는 음악 소리와 함께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고 몸도 예전처럼 늘씬하지 않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모두가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만을 위한 스포츠이자, 문화라고 말이에요. 또 춤을 즐기는 것보다 멋지게, 잘 추는 것에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셀 위 댄스?》를 읽다 보면 춤을 추는 데 꼭 필요한 것은 결국 활짝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어울려 신바람 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깨를 들썩 들썩 춤을 추고만 싶어요. 어딘가 어설피기도 하고 익살맞기도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독후 이해 활동

- Q [할머니의 일기] 친구와 춤을 좋아하는 할머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할머니 마음이 되어 일기를 적어보아요.

월 일 날씨: 제목:



- Q 라랄라~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잡지나 신문에서 찾아 오려 붙여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 Q [댄스복 만들기] 신나게 춤을 추려면 멋진 댄스복도 필요하겠죠. 집에 있는 보자기나 스카프를 이용해 예쁜 댄스복을 만들어 보아요.



★보자기나 스카프를 준비해요. 보자기를 옆으로 길게 이어 붙여 치마를 만들고 목을 둘러 옆으로 매면 윗도리가 될 거예요. 구슬이나 꽃을 붙이면 더욱 예쁠 거예요. 위 그림의 댄스복에 스티커를 붙여 꾸며도 좋아요.

Q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요] 할머니와 친구들이 펼치는 멋진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아요.

